

투자족 '귀향 신농민' 여성의 성장기

녕분방: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우리 세대의 손에서 방치돼서는 안된다



녕분방



일밭에서 농업용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녍분방

최근 수년간 온라인에서는 '귀농'이 많은 네티즌들의 '로망'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귀농한 사람들의 실생활은 어떠한가? 호남성 자리(慈利) 현 분방재배양식전문합작사 책임자인 녍분방은 10년간의 농사 생활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외지에서 일하던 투자족 여성 녍분방은 지난 2016년에 고향인 자리현 장령강촌으로 돌아왔다. 당시 눈앞의 광경은 그를 안타깝게 했다. 넓은 땅이 버려져있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녍분방은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땅이 우리 세대의 손에서 방치돼

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농촌에 뿌리를 내렸다.

귀향 초기에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90 후" 여자가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7년 그는 마을 간부로 일하며 주민들을 동원해 농사를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전통적인 동원 방식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여 그는 2019년에 황무지를 임대해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에는 마을 간부직을 내려놓고 자리현 분방재배양식전문합작사를 설립하고 전문 농업인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내렸다.

창업 초기 녍분방은 농업에 문외한이었다. 그는 임대한 2.67여헥타르의 황무지를 다루면서 파종, 육묘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다 배워야 했다. 병충해 예방을 모르던 농사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꾸어 농기계를 구입했으며 일손이 부족하면 자기가 직접 농기계 조작법을 배웠다.

결국 그는 품심 하나로 대규모의 재배 모델을 모색했다. 합작사가 운영하는 토지면적은 초기의 2.67헥타르에서 86.67여헥타르로 확장되었다. 그

밖에 드론으로 거름 주기, 기계화 수확 등 현대 기술을 도입해 20여헥타르의 황무지를 개간했으며 지역내 곡물 생산 시범기지를 건설했다.

녕분방의 합작사는 버려진 땅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농촌에 남겨진 여성과 노인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는데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났다. 합작사는 총 2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5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그는 새로운 매체 홍보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논벼+유채' 문작법을 개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토지 효율을 높였다.

녕분방은 지난 2023년에 제 14기 전국인대 대표로 선출되었다. 밭을 지무 수행의 무대로 삼은 그는 농가를 방문하고 재해로 손상된 농지를 조사하는 등 항상 기층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현재 녍분방은 농업에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생태관광, 재배체험, 레저휴양'을 아우르는 농촌 관광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 많은 '신농민'들이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신화빛

광동성 조선족들 민속운동회 화끈



제9회 '옹위갑' 광동성 조선족 민속운동회가 광동성조선족연합회의 주최로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화두체육중심에서 펼쳐졌다. 행사에는 광동성조선족연합회(회장 정용택) 회장단과 산하 각 지역 단체 및 광동지역 기관, 단체 책임자와 대표 그리고 연변, 심양, 대련, 단둥, 천진, 청도, 상해, 절강, 광둥 지역 사회단체 책임자와 대표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4월 26일 아침, 삼삼오오 떼를 지은 남녀로소가 알록달록 화려한 민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민속운동회가 열리는 화두체육중심에 모였다. 개막식은 검열식에 이어 내외빈 축사 그리고 200여명이 참가한 집단무용 공연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장은 또 8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성대한 효도 잔치, 비빔밥 만들기, 찰떡 치기 등 조선족 전통 음식 시연으로 장식되며 분위기를 화끈하게 장식했다.

민속운동회에는 광동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600여명의 조선족들이 참여해 운동회 3일간 씨름, 널뛰기, 장기 등 조선족 전통 운동경기와 축구, 배구, 골프, 탁구, 룯상, 바줄당기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한껏 즐겼다.

민속운동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광동지역 조선족 군중들의 화합과 건강을 도모하는 장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한몫 기여하는 장으로 거듭났다.

/ 흑룡강신문

북경 애심여성들 '미술관 탐방' 활동

일전, 북경애심여성네트워크 자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탐방 활동을 조직하였다.

행사에서 중앙미술학원 왕군(王军) 교수와 석사연구생들이 작품 해설을 맡아주었다. 왕군교수는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독특한 해설 방식으로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중앙미술관의 풍부한 소장 작품들을 귀에 쫓삭 들 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었다. 학생들도 풍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령감 소스, 창작 배경 및 예술적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고전 회화로부터 현대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애심어머니와 아이들은

예술의 매력에 빠져들어 명화의 독특함을 가까이에서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작품 감상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캔버스백 그리기 활동이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미술관 관람을 통해 얻은 감회와 자신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결합하여 그림으로 마음속 예술세계를 그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번 활동은 애심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좋은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최고급 수준의 작품 해설가와 만남을 통해, 그리고 작품을 보는 새로운 시각, 뒤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통해 깊이있는 예술 감상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 북경애심여성네트워크

서장 나취시 로인주간돌봄중심, 로인들 안식처로

서장자치구 나취시 써니구의 로인주간돌봄중심에서 60세 이상의 로인들은 호적과 민족을 불문하고 매일 20원만 내면 점심, 저녁 식사와 바둑두기, 카드놀이, 춤추기, 물리치료, 운동, 의료보건, 리발 등 14가지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중심은 2020년 12월 22일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현재 18명의 전담 직원이 로인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발 4,500미터의 서장자치구 북부 고원에서 이 중심은 로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중심은 2020년 12월 22일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현재 18명의 전담 직원이 로인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발 4,500미터의 서장자치구 북부 고원에서 이 중심은 로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 신화빛

장족 택배원 라바, 20만개 택배로 쓴 청년의 '답안지'

올해 '전국로동모범' 칭호를 수여받은 장족 청년 라바(拉巴)는 서장 순풍회사 나취(那曲)점의 택배원이다. 올해 서른살인 그는 2016년부터 일하기 시작해 택배 20만건 이상을 처리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일에 지장을 주었거나 고객 신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서장 나취시는 평균 해발이 4,500미터 이상인 고산지역으로서 춥고 산

소가 희박한 등 원인으로 택배원이 더욱 쉽지 않다. 이곳의 겨울은 길며 얼어붙은 길 위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수시로 미끄러진다. 폭설, 폭우와 같은 날씨도 사계절 내내 있다. 하지만 라

바는 굵은 날씨에도 쉬지 않고 나취의 크고 작은 골목을 오간다.

"자신의 일을 잘해내는 것으로 모든 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한다." 라바가 하는 말이다.

/ 신화빛

[다민족지역 보물 캐기]

'중국의 재스민 고향'을 품고 있는 광서좡족자치구

광서좡족자치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산물들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10원에 3근'씩 하는 '과일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은한 단맛'의 물소 우유가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맛의 쌀국수도 있다.

광서에는 우리 나라 전체 과일 나무 종류의 약 70%가 분포되어 있다. 광서지역 주민들은 지혜와 노력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과일 집시'를 만들어냈다.

최근 몇년 동안 광서 류주시의 우렁이 쌀국수(螺蛳粉)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인터넷 발전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광서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시장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원래 지역 간식으로 알려졌던 우렁이 쌀국수는 이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독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상쾌한 재스민차의 맛과 향,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재스민꽃 10송이중 6송이가 광서 횡주시에서 생산된다. 예로부터 횡주시는 뛰어난 품질의 재스민꽃으로 유명한

바 '중국의 재스민 고향', '세계의 재스민 도시'라는 명예를 지니고 있다.

북해의 바다오리알은 광서의 대표적인 특색 농산물중의 하나다. 개별에서 방목되는 바다오리는 천연 해산물을 먹으며 자라기 때문에 독특한 풍미와 높은 영양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바다오리알은 광서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로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신에너지 자동차 10대중 약 1대가 광서 좡족자치구에서 제조된다. 광서 지역은 신에너지 차량 생산과 판매가 활발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남부지역의 핵심 자동차 제조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광서는 독특한 지리적 기후 조건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물소 우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지 물소 우유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현재 상업용 물소 우유 생산량이 전국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업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 인민넷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 '시 읍기' 특강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는 일전에 심양시화평구서탑조선족소학교 교실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시 읍기' 김창영시인 특강을 마련했다. 협회 사랑송반 회원들과 시문학에 흥미가 많은 회원들 포함 27명이 특강을 경청했다.

이번 특강은 근년래 협회 사랑송반에서 널리 랑송된 김창영시인의 '서탑 련작시'에 비해 '역경시'는 리해하기 어렵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창영시인을 초대하여 '역경시' 해설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김창영시인은 우선 '역경시'를 쓰게 된 동기와 '역경시'를 쓰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역경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역경》 관련 책자 수십권을 반복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 '무릇 모든 사물이나 사건, 현상의 존재에는 합리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말하자면 《역경》에서 말하는 길흉화복은 상대적인 것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동시에 때와 장소에 따라 전환 가능한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내게는 화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인 경우가 있고 또는 보는 사람의 심경이나 각도가 다름에 따라 길흉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역경》은 존재의 합리성을 존중할 뿐 말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좋다와 나쁘다는 판단은 모두 소위 주위의 극히 개인

적인 결론이라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역경의 핵심을 이루는 건위천(하늘), 곤위지(땅), 감위수(물), 리위화(불), 진위뢰(우뢰), 손위풍(바람), 간위산(산), 태위택(호수) 내용을 담은 8괘의 시 8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 경험을 결부해 역경이 우리의 생활에 주는 계시와 영향을 알기 쉽게 해석하여 회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김창영시인은 또 디카시 쓰는 방법, 생활수기 쓰는 방법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호평을 받았다.

김창영시인은 현재 《료녕신문》 편집, 연변작가협회 리사, 룡녕성 작가협회 회원, 룡녕성조선족문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시집 《산처럼 물처럼》, 《서탑》, 《돌들이 목목이 되어》, 《역경, 시를 만나다》를 출판했고 《연변문학》 문학상, 《장백산》 문학상, 중국 조선문신문출판문학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는 2022년 1월에 사랑송반을 개설한 이래 끊임없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목받고 있는바 시 읍기 회원들의 일상이 되어 이들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 룡녕신문